

이재명, 민주 대선후보 선출... 89.77% 역대 최고득표

순회경선 내내 90%대 대세론
김동연 6.87%·김경수 3.36% 순
“정권탈환해 진짜 대한민국 보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7일 90%에 육박한 역대 최고 득표율로 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국 순회 경선 중 마지막인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를 열고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부터 12일 간 누적된 전국 권리당원 및 대의원 투표 결과와 ‘국민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득표율 89.77%로 압승을 거두며 대선 본선행을 확정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후보는 1~4차 순회경선을 합치면 전체 대의원·권리당원·재외국민 득표율은 90.40%로 집계됐다. 전체 비중 가운데 50%가 반영되는 일반 국민대상 여론조사에서는 89.21%를 득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합산 6.87%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다.

김경수 후보는 3.36%로 3위에 자리했다. 이날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에서도 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 손을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적 1위를 지켰다. 이 후보는 32만1044표(91.54%)를 득표해 나머지 후보에 크게 앞섰다. 앞서 지난 26일 열린 호남권 투표에서 이 후보는 88.69%를 득표해 1위를 기록했다.

총 4차례 순회 경선은 물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90% 전후의 득표율을 시

종일관 유지했다는 점에서, 경선 초기부터 예상됐던 공고한 ‘어대명’ (여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의 흐름이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문을 통해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서 정권탈환을 통해,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기회를 주셨다”며 “그 간절하고 엄중한 명령, 겸허히 받들겠다.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늘 현명했던 그 선택의 한 축에 이재명 ‘네 번째 민주 정부’가 뚜렷이

새겨질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극복, 통합과 국민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불평등과 절망,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구시대의 문을 닫고, 국민 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새로운 세상을 위해 이재명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를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 국민은 그 위대한 대서사시의 새 장을 써내려갈 것”이라며 “이재명은 여러분이 지어주시는 희망의 이름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국민의 유용한 큰 도구이자 충직한 대표 일꾼의 이름”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앞서 마지막 순회 경선에서 “대한민국과 이 땅의 민주주의는 제주 4·3의 희생자들, 광주 5·18 영령들 그리고 오늘의 국민들에게 큰 빚을 졌다”며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위대한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월 10~11일 제21대 대선 본후보자 등록 이후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에 실시된다.

▶ 관련기사 2·3·4면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전남 ‘1000원 여객선’ 이용객 550만명 돌파

2021년 도입... 올해 예산 43억원
도, 정부에 준공영제 확대 건의

전라남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1000원 여객선’ 누적이용객이 550만명을 넘어섰다.

2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1000원 여객

선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556만2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 사업은 섬 주민이 여객선을 이용할 때, 운임 중 1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는 제도로, 도입 첫해 10억원이던 예산도 해마다 확대돼 올해 43억원까지 늘어났다. 실제 전라남도에는 전국 섬의 65%에

해당하는 2165개의 섬이 있으며, 이 중 유인도 274곳에 약 15만9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에게 여객선은 병원 진료, 자녀 교육, 생필품 구매 등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통수단이지만, 평균 운임이 387.3원으로 항공기(214.5원), 고속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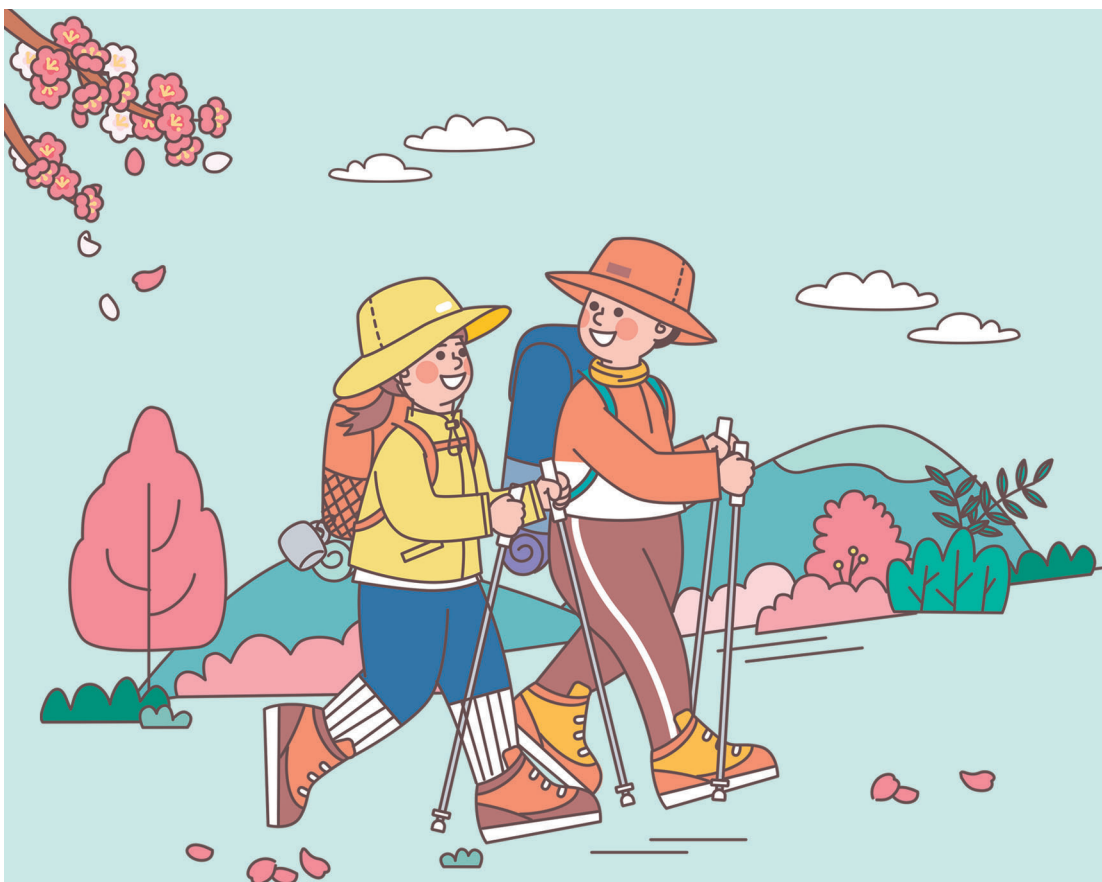
(142.7원), 시외버스(131.8원)보다도 비싸 주민 부담이 컸다.

1000원 여객선 도입 이후 섬 주민들은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됐다. 완도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예전에는 육지를 다녀올 때마다 왕복 4만~5만원의 운임을 지불해야 해 부담스러웠으나 이제는 왕복 2000원으로 여객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 선제적인 정책은 타 시도에도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전북특별자치

도, 경남도, 인천시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가 전라남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유사 사업을 준비 중이다. 도는 1000원 여객선 외에도 섬 지역 생활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도는 여객선 준공영제를 현재 5개 지정항로에서 도 전역의 적자 항로로 확대해 섬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며, 일반인 여객선 운임 지원을 위한 국비도 요청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무등산을 걷자

제19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

5월 24일 오전 8시30분

전남일보가 '제19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를 갖습니다.

광주광역시·화순군·담양군에 걸쳐 있는 무등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산행은 문빈정사 광장을 출발해 자율 산행으로 진행되며,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정화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무등산의 추억'을 담아가실 시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 행사명 제19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
- 일시 2025년 5월24일(토) 오전 08시30분
- 장소 문빈정사 앞 광장 (집결)
- 신청기간 2025년 4월22일(화) ~ 5월19일(월)
- 인원 300명 선착순 접수
-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제공

- 참여방법 홈페이지(www.jnilbo.com) 접속,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문의 062) 519-0730~1
- 주최주관 전남일보·전일엔시스
- 후원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 화순군·담양군 전남대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